



↑ 코스피 2014.15 +11.64	↓ 코스닥 626.82 (-0.84)
↓ 금리 (연대) 1.11 (-0.02)	↑ 환율 (원/달러) 1195.20 (+1.50) (3일)



[금융]  
농협 7명 사퇴  
물갈이 예고  
05

# “결산·주총 이어 법인세 연기를” 코로나19發 세무·회계 대혼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청원  
이틀만에 1600명 이상 동의  
지원대상 대구·청도 한정돼

— 청원진행중 —

###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참여인원 : [ 1,676명 ]

카테고리 기타    청원시작 2020-03-02    청원마감 2020-04-01    청원인 naver-\*\*\*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결산을 앞둔 기업들의 불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택근무를 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감사보고서나 법인세 신고 등의 문제가 비단 대구·경북 지역에 한정될 수 없다는 것. 상장사들은 전국적인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등 강도높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청원은 이틀 만에 16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대구·청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안 받는 곳이 없다”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지만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법인세 신고로 재택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6일 대구·청도 지역에 위치한 기업은 법인세 신고납

부를 1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기업의 세무대리인 사업장 감염으로 인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기한연장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세무업계는 지원책을 전국단위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로나 사태가 전국적인 문제이고, 재택근무 기업도 늘어나고 있어서다.

한 상장사 세무 담당자는 “법인세 처리가 재택근무로는 한계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면서 “특히 세무사가 법인세를 통보해도 대표까지 확인 절차와 그 사이 일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면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경북 지역은 지원대상지역에서 빠져 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 위기 경보가 ‘위기’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된 만큼 ‘특별재난지역’만 혜택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업계 내에서도 의견은 갈린다. 대형 회계법인인 디지털 프로세스를 잘 갖춰놨기 때문에 대구, 청도 지역이 아닌 이상 법인세 산출에 크게 문제가 없다. 또 법인세가 미뤄지면 다른 세금도 차례로 미뤄져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3면에 계속>**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작년 국민소득 뒷걸음질 성장률 2.0%대 ‘턱걸이’

1인당 국민총소득 3만2047달러  
실질 GDP성장률 10년 만에 최저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GNI)이 4년 만에 감소했다. 저성장·저물가에 원화 약세까지 겹친 영향이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로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19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2047달러로 1년 전보다 4.1% 감소했다. 지난 2017년(3만1734달러) 처음 3만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3년 연속 3만달러를 돌파했지만 2015년(-1.9%) 이후 4년 만에 처음 감소한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한 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명목 국민총소득을 통계청 추계 인구에 나눠 원·달러 환율을 반영해 산출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줄어든 것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GDP 성장률이 둔화된 데다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5.9% 상승한 영향이 컸다.

박성빈 한은 국민계정부장 “국민소득이 감소한 것은 명목 GDP가 떨어진 게 이유”라며 “지난해 경제성장률 자체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전반적인 대외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1년 전보다 둔화된 경향이 있고,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명목 기준 수출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 대



비 2.0%를 기록하며 2%대에 ‘턱걸이’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속보치와 같은 수준으로, 지난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이로써 2017년 3.2%, 2018년 2.7%, 2019년 2.0%로 3년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2%대 성장률은 정부가 밀어 올렸다. 정부와 민간의 성장기여도는 각각 1.5%포인트, 0.5%포인트로 성장의 대부분을 정부가 이끌었다.

/김희주 기자 hj89@



마스크 쓴 JY, 구미사업장 임직원 격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코로나19에 지친 구미사업장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구미사업장을 방문했다. 이 부회장은 마스크를 쓰고 모습을 드러냈으며, 최근 확진자 발생으로 가동을 잠시 중단했던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직접 점검했다.

/삼성전자

# 근무 자율성 높여 워라밸 선도

## SAMSUNG 삼성의 변화 (下) 사내문화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  
수평적 조직문화로 걸쳐 혁신

삼성전자는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높인 ‘유연근무제’를 통해 임직원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도록 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근무 환경 개선,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임직원 소통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부드러운 사내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8년 7월부터 개발직과 사무직을 대상으로 주 단위 ‘자율출퇴근제’를 월 단위로 확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직원에게 근무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는 ‘재량근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해 임직원이 워라밸을 이루게 하고, 효율적인 근무문화 조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삼성전자는 이에 앞서 2009년 ‘자율

출퇴근(오전 6시~오후 1시 사이에 직원이 원하는 시간에 출근해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2012년부터는 이를 확대한 ‘자율출퇴근제(오전 6시~오후 6시 사이에 직원이 원하는 시간에 출근해 1일 4시간 이상,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수직적 조직문화를 벗어나 수평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6년 시대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과 관행을 떨쳐내고 글로벌 기업에 걸맞은 의식과 일하는 문화를 혁신하는 ‘스타트업 삼성 컬처혁신’을 선언했다. 조직문화 혁신을 새로 시작해, 스타트업처럼 빠르게 실행하고 열린 소통의 문화를 지향하면서 지속적으로 혁신해나가는 의미다.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업무생산성 제고 ▲자발적 몰입 강화 등이 3대 컬처혁신 전략으로, 이후 수평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직급 체계 단순화, 비효율적인 회의와 보고문화 개선, 다양한 휴가제도 도입을 이뤘다.

**<6면에 계속>**  
/구서윤 기자 yuni2514@

# 코로나19 확진자 5000명 넘었다

1000명 넘어선지 7새만  
국내 사망률 0.6% 수준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오후 코로나19 감염자는 374명 추가돼 총 확진자가 518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2시(0시) 전일 0시보다 600명 늘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달 26일 1000명을 넘어선지 7새만에 5000명을 넘어선지 며칠째 수는 가파른 증가 추세다.

사망자는 29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오전 12시(0시) 기준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만에 520명 늘어나며 총 3601명이 됐다. 경북 지역도 6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며 대구·경북 지역 확진자는 총 4286명으로 늘었다. 전체 89%를 차지하는 규모다.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7명 늘어난 98명으로 집계됐다.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 6명이 잇달아 숨졌다. 이날 들어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총 11명이 사망했다.

이날 오전 3시경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78세 남성 확진자가 숨졌다. 81세 남성은 대구 파티마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 사망

했고, 응급실 치료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71세 남성은 지난 달 확진 판정을 받고, 경북대병원에 입원 중 사망했다. 65세 남성과 86세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 입원 중 사망했다.

이제까지 대구 지역 사망자는 총 20명이며, 경북지역에서는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은 0.6%로 집계된다. 남성이 0.8%, 여성이 0.3%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다. 30~50대 사망률은 0.2~0.5%에 그치지만, 70대에선 4%, 80대에선 5.4%까지 급상승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